한알의 밀알

섬김과 나눔의 동역자

www.miral.org QUATERLY MAGAZINE HANALEUI MIRAL Vol.13 / 2007. 세번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CONTENTS 2007 가을호

03 밀알서신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04 밀알탐방 〈웃음 · 행복 · 사랑이 가득한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을 소개합니다.〉

08 아름다운풍경 〈 '변함없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10 밀알이 간다 〈필리핀 바자오족 이야기〉

14 새생명나눔캠페인 〈장애아동새생명릴레이사업 보고〉

15 현장스케치 〈사진으로 보는 전원단합대회〉

17 밀알뉴스 〈밀알뉴스〉

21 섬김과 나눔의 동역자 〈밀알복지재단 2007년 3/4분기 후원금 수입 · 지출 내역보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 장: 홍정길
상임이사: 정형석
이 사: 손봉호, 박순채, 정현만, 김종인, 김명희, 우창록, 정형철
김준수, 김수지, 장평훈, 양승헌, 김주영, 노상헌
감 사: 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실행위원: 김명희, 정형석, 홍정혜, 이천화, 전승만, 양숙미, 조윤경
류제룡, 윤현범, 서연숙, 정무성, 강병문, 홍은주, 박영실
김두현, 김미옥, 박소영
제 호: 한 알의 밀알(통권13호)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 행 일: 2007년 10월 26일
편집기획: 밀알복지재단 후원홍보팀
주 소: 135-23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EL : 02-3411-4664 / FAX : 02-3411-4779
디 자 인: (주)The 오름 02-707-1080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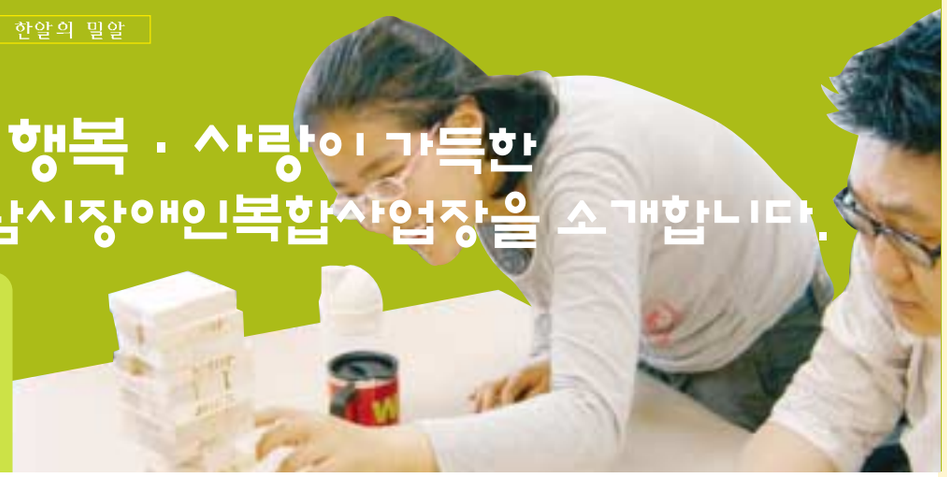


김 준 수 이사
성덕중앙교회담임목사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겸손했던 것이다. 예수님하고 나이차이가 별로 안 났을 것이다. 거기다 그는 관원이었다. 성경에 이름만 안 밝혔을 뿐이지 그는 당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거기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 온 사람이었다. 가정도 얼마나 괜찮았겠는가? 거기다 그는 매우 부자였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으면 사람들로부터 부자란 소릴 들었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현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세를 생각할 줄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한 마디 요구는 청년을 슬프게 만들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로 돌아섰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던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도약하라는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청년의 인생은 정말 좋은 인생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생은 아니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 것을 포기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위대한 인생은 포기한 자기의 권리와 소유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말이다. 예수님만큼 큰 것을 포기했던 인생은 없다. 예수님만큼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섬긴 인생은 없다. 청년은 자기의 좋은 인생에 '영생'을 더해 조금 더 '좋은 인생'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부자청년은 결코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의 책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든데 위대한 인생이라니! 그러나 주님은 좋은 인생에 머무르지 말고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모두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부르셨다. 우린 누구나 자기의 재물이나 소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좇도록 부름 받았다. 십자가야 말로 어떤 인생이든 좋은 인생이 되게 하고,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요 은총이지 않은가? 우리 모든 밀알 가족들에게 주께서 큰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위대한 인생으로의 모험을 즐기차게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린다.



웃음 · 행복 · 사랑이 가득한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을 소개합니다.

밀알의 장애인복지 전문기관 탐방시리즈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학교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은 성남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인간사랑, 인간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직업활동 및 생활안정의 행복을 제공하는 보람된 일터로서 장애인의 직종개발 및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등의 사업실시로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장입니다.

장애인복합사업장은 어떤곳이죠?

❖설 립 주 체 : 성남시
❖위탁운영기관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시 설 장 : 이 윤 숙
❖개 원 일 : 2004년 8월 1일 개원
❖시 설 유 형 : 보호작업시설
❖사 업 형 태 : 완제품 생산 및 단순임가공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513-14 시콕스타워 201,202,210,211호

직 원 현 황

구 분	직원수	근로인수
종사자	5	31(장애인:30명, 비장애인:1명)

이용대상 및 이용일시

● 이용대상 : 만18세 이상의 성남시 거주 장애인
● 이용일시 : 평 일 - 09:00 ~ 18:00

사 업 내 용

● 인쇄사업

- 주요작업 : 종량제봉투 제작
- 작업활동 : 인쇄, 광전관식제대기작업, 프레스기 작업, 인쇄 작업,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규격별 팩 단위분리 포장, 박스 규격별 단위포장, 박스 운반 및 적재작업
- 완 제 품 : 성남시 납품
-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장애인 고용창출





● 임가공사업

- 주요작업 : 단순임가공
- 작업활동 : 우편물 삽입작업, 봉투봉인작업, 우표부착, 바느질작업, 실밥제거작업, 포장작업, 박스접기작업, 스티커부착작업, 아대접기
- 완 제 품 : 하청업체 납품
- 기대효과 : 다양한 작업공정을 통한 소 근육 발달 및 수 개념 향상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개인, 사회활동 적응훈련
- 건강검진,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동호회활동, 기술훈련 (인터넷, 워드, 생산라인, 가동)



●직업준비, 수정 적응훈련
- 직업인식, 작업습관훈련, 직장예절교육, 작업장 안전교육, 산업체 견학



●직업능력향상, 취업유지 적응훈련
- 작업 변별 및 수행능력 훈련



●특별활동
- 체력단련활동, 문화행사 참여활동



●취업알선
- 일반기업체 취업 희망자 상담 및 취업능력 평가 심사에 따른 취업알선



●가족 상담
- 취업상담, 가족상담



내 꿈을 펼치는 평생일터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

근로인 **임갑진**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는 한해인가보다. 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 초입에 접어드는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흐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리는 비는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만 같다. 하루하루 비가 내리니 쉬는 시간에 밖에를 못나가 회사 안에 있으니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다. 누가 옆에서 말을 붙여도 내 고개는 창밖을 향해 있으니 몸은 망부석처럼 서있고 마음은 젖어 있었다.

아침 출근을 하여 잠깐 일을 하면 어느새 퇴근시간이 되니 하루의 일과가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일을 하면 어지럽던 부분들이 잘 정돈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소식은 무엇보다도 인사개편이다 새로 오신 오규석 팀장님을 위로하여 중추적 역할을 맡는 아주머니들 회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참신한 젊은이들 이들 모두가 새로 입사해 회사를 더욱 든든하게 이끌어갈 예정이다. 서로가 협동하고 노력하면서 회사에 일조를 하는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낮이 길었던 하루는 우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듯하다. 하루하루 일의 물량이 끊이질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 구분도 없이 일이 마구 쏟아져 들어온다. 임가공작업에는 끈임 없이 일의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루8시간씩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임가공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다. 주문도 밀리고 물량도 많이 쇄도 되고 있어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우리 사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몸 따로 마음 따로 흔들릴 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열심히 헤쳐 나가야한다고 다짐한다. 비록 손으로 하는 일이지만 적은 단가를 받는다고 용기 버리지 말고 좀 더 높은 단가를 받으려고 열심히 한다면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월요일 아침예배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사업장이 번창하고 직원들에게도 주님이 힘이 되어주고 큰 사업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큰 힘이 된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방송했지만 종량제봉투를 위조해서 판매한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장애인복합사업장이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아도 좋다는 것인지. 그래서 종량제 제작하는 (주)우전화학을 견학하고 교육도 받았다. 우전화학은 위조봉투에 대한 대책으로 종량제 위조방지 기계 설치를 하여 종량제 봉투에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봉투를 새로 제작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일은 어렵고 힘은 더 들지만 우리가 살아야할 길을 찾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원장님께서 제대기1대를 새로 들여오게 하셔서 종량제 봉투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노력해서 종량제 봉투 생산을 많이 한다면 우리도 대량생산을 하여 직원들의 처우도 좋아질 거라 기대한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다.

복합사업장 생활에 있어 일 이외에도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다. 첫 번째 즐거운 일은 3개월마다 열리는 생일파티이다. 조촐하지만 다과회를 열고 케익을 자르고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준다. 두 번째 즐거운 일은 근로인들 모두 함께 가는 여행이다. 우리 작업장은 해마다 2박3일로 여행을 간다. 여행의 짜릿함을 즐기고, 직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 좋고 즐거운 시간이다. 작년에는 경주를 다녀왔는데 여행을 다녀온 뒤 동료들과 두배 이상 친밀해졌고, 그 마음 또한 쭉 계속되었다. 올해는 여행을 산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맑은 공기 마시고 단풍이 물든 산 대자연으로..... 떠나고 싶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근로인 임갑진씨는 성남시 장애인복합사업장 인쇄사업장에서 제대기를 담당하고 있으며, 항상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미스터 성실맨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미용 봉사자 소미경

자원봉사란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을 뜻합니다. 덧붙여 책임감과 지속성으로 댓가없이 섬겨주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최근 봉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개념들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웃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한 기관에 한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착한 가위손이 되고 싶다는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미경 봉사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지난 6년 동안 저희 복지관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용 봉사자 소미경이라고 합니다. 46세로 남편과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현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6년째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Q 네. 6년동안 봉사를 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힘든 가운데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의 시작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에 홍보지를 보고 1주일동안을 고민한 끝에 전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상처 있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니 마음의 부담이 크더라구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참을 고민하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결심이 선 후 선택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역시 시작을 신중하게 하셔서인지 참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6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A 기관에 입장에서 봉사시간을 정해두고 하고 있지만 언제나 시간이 없어 화를 내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개인적인 마음은 시간을 더 할애하여 예쁘게 머리손질을 해드리고 싶지만 기관에 원칙과 규칙을 따라야 하는 봉사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더군요~! 그렇지만 지금은 기관의 선생님과 잘 조율하여 위와 같은 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Q 지금껏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었나요?

A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지만, 머리를 자르면서 그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깊은 눈물이 나더라구요. 마음이 아파오면서 그분들을 더욱 섬기고 싶다는 강한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참 잘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Q 앞으로의 자원봉사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일단은 지금의 봉사를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개인미용실을 갖게 된다면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기도 합니다. 복지관까지 나오시기 힘든 분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Q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감동받는 시간 이였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 해 주세요.

A 부족한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일들을 훌륭히 해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해 저는 한 것이 없기 때문 이예요. 기관 선생님의 추천이 감사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변함없는 마음' 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해서 하는 봉사이니 만큼 기관과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봉사자로서 항상 그 자리에 섬김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서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노고를 돌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알 가족에게 문안드립니다.
9월 1일-6일까지의 밀알 해외연수팀의 세부 방문은 바자오족에게 큰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함께한 시간들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던 밥은 오병이어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오신 귀한 분들인데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군요
여러분께서 기도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트랙터는 아직 몇 군데를 손질하여 농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내년쯤에는 달라진 농장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주시는 밀알복지재단의 후원자님께 바자오족 소개와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시부바자오교회】

필리핀은 아시아의 유일한 크리스천 국가로써 인구 8,500만 가운데 국민의 70~80%가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고 10~15%는 모슬렘 입니다. 이 모슬렘은 13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음에 대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종족도 있지만 납치와 폭탄 테러를 일삼는 모슬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슬렘 종족 중 복음에 대해 열려 있는 종족이 바자오족입니다. 그러나 바자오족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하고 교육열이 가장 낮으며 복음화는 2%가 못 됩니다. 바자오족 인구는 필리핀 전역의 6만 명 정도 되는 소수 종족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에 4만 명, 인도네시아에 10만 명 정도로 필리핀 최남단 슬루 제도에 수상가옥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며 물고기의 이동양에 따라 배를 타고 다니는 바다 집시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며 같은 모슬렘들로 부터도 '내뱉은 침'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물고기보다 조금 낫다는 약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바자오의 가장 많은 수가 필리핀 최남단 슬루 제도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필리핀 전역의 해안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작은 집단을 이루며 족장제도에 묶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명이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세

부시티에 있는 바자오 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98%이상이 문맹자이고, 그리스도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종족의 문을 열어 주셨고 저희는 그동안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국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주 적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한 손 안에 듭니다. 저희는 현재 학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사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24명의 학생들을 최선을 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밀알 복지재단 후원자님들이 바자오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라사크리스천 아카데미에 4년째 후원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들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세부 바자오 마을 안에는 세부 바자오교회가 있고 70~80명의 바자오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떼 섬 바또 바자오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저희가 그동안 후원하여 교육시킨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후원한 한 학생은 교육대를 졸업하고 현재 저희가 설립한 학교에서 다른 바자오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교사가 되었습니다.


【라사크리스천 아카데미】

【농 장】

그러나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18일, 바자오 동네는 400채 이상의 집이 화재로 인해 전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학교도 함께 불에 타 재로 변하였습니다. 이 화재 후 2년 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정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애초 정부의 약속은 세부시로 부터 1.5km떨어진 무인도에 바자오 종족들의 집과 학교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톨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회와 학교 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자오족은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하였지만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어업법과 치솟는 휘발유 값으로 인하여 이들의 방법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그중의 몇은 잡화 행상을 합니다. 문맹인 그들이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게 된 저희는 3년 전에 농장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바자오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바자오족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가르치고 보급하여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저희는 세 번이나 우물을 팠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려면 120m이상 땅을 파야하는데 US달러로 1만 4천 불이 필요합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우리는 바자오족을 품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밀알복지재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선교사님과 버커힐목사님 가족】

2007년도 법인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이 필리핀 세부로 직원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바자오족을 만나고, 필리핀의 복지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연수를 다녀와서

강지현(목련어린이집/ 통합교육 주임)


【바자오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부터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예요" 라는 말로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풀면서 시작했던 필리핀 연수.

밀알복지재단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향하던 짧은 시간동안 우리는 이미 한 팀이 되어있었다.

최정희 선교사님 댁에 도착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열대과일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맛을 본 뒤 이번 연수에 대한 감사와 부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첫날밤을 마무리했다.

둘째날 아침 일찍 서둘러 바자오족을 위해 준비한 찬양연습을 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바자오족에 관한 간략한 소개비디오를 본 후 설레임속에 그들과 예배를 함께 보기 위해 출발했다.

바자오족은 배에서 태어나 배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족으로 호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필리핀의 최하빈민층이란다. 몇 년 전 마을 화재로 인해 생활거주지를 모두 잃었고(덕분에 선교사님도 14년이나 일궈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으셨고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다) 지금 거주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아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해변가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했다.

좁은 널빤지를 행여나 다리 밑에 있는 말 그대로 시궁창(바자오 사람들은 이 물에서 목욕도 하고 볼일도 보고 쓰레기도 버리고 한다)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며 건너 도착한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는 잠시 한 말을 잃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100여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찬양 연주 악기는 봉고와 깡통을 엮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춤을 추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니...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에 감격하고, 우리가 준비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했다.

셋째, 넷째날 우리는 세부의 선교사들이 세운 주요 보육시설들인 Children of Hope School, Children's Shelter of Cebu, Sunshine Corner Ministry of Ecouragement Incorporate, Christ for Asia, 그리고 최정희, 버커힐 목사님 가족이 운영하는 Lasa Christian Academy, 가나안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과거 선교사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 풍족한 삶이 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때 받은 것들을 다시 베풀어야 할 때임을 생각했다.

최정희 선교사, 버커힐 목사님 가족께 이 어렵고 빛도 나지 않는 이 험난한 일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 일구어 놓은 학교와 농장들이 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았는데 , 이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lasa christian academy에 후원금 전달식】

최정희 선교사님 가족 분들은 이 일은 평생을 걸고 하는 일이시며, 바자오족이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버커힐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내치지 않고 품었을 때 후에 이들이 목말라 하는 다윗을 위해 적진의 샘에서 물을 떠다 줄 만큼 용기 있고 강건한 자가 되었다는 메시지(사무엘상 22장 2절)를 통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다윗이 한일과 같음을 기억하고 일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일에 대한 격려를 해주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연수팀과 최정희, 버커힐 선교사 부부】

연수 마지막 날 필리핀 공항에서 최정희 선교사님과 이별의 포옹을 나누면서 땀과 기도로 일구고 계신 가나안의 농장이 젖과 꿀이 흘렀던 그 옛날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샘이 흐르고 열매를 맺어 바자오족의 삶이 풍족해지는 역사가 함께 하길 기도했다. 더불어 최정희, 버커힐 목사님 가족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즐거운 연수를 만들어주고자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주시고 필리핀을 최대한 느껴볼 수 있게 하고자 해주셨던 최정희, 버커힐 목사님 가족의 친절함과 트럭 뒤에 타고 달리면서 보았던 세부의 맑은 하늘과 바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던 세부 사람들의 해맑던 표정들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장애아동 새생명릴레이 사업 보고

후원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된 “2차 새생명 릴레이사업”이 많은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사업에 동참해주신 SK에너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여러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 새생명릴레이 사업의 대상 어린이는?

총 6,000만원의 의료비(수술비&간병비)로 37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3명의 저소득 가정 어린이와 14명의 생활시설 거주 어린이가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남자 어린이는 22명, 여자 어린이는 15명이었습니다. 대상 어린이들은 뇌병변, 발달장애, 지체 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술 받은 아이들 중 일부 어린이는 몇 번의 수술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으며, 재활훈련의 결과에 따라 수술 후 예후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에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술 받은 어린이들은?

장애아동 새생명 릴레이 사업을 통하여 수술을 받게 된 37명의 어린이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몇 어린이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까치발 교정 수술을 통하여 안정되게 걸을 수 있게 된 주이. 호기심 많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주이의 꿈은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유주이(12세)
뇌성마비



의사가 되어 자신이 도움 받은 것처럼 남을 돕고 싶다는 성현이가 수술 후 처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영리하고 밝은 성현이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어 남을 돕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김성현(12세)
지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의 중복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주호는 심한 중이염으로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지 못하면 청각을 잃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호의 어머니는 수술비 지원으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 웃음을 잃지 않고 용기 내어 주호를 잘 키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주호(13세) /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운하는 늘 다리가 꼬여 있어서 지지대 없이는 혼자 앉아 있기도 불편한 아이였습니다. 글자를 알지만 앉아 있기 힘들어 글씨를 쓰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였던 운하는 근래에는 스케치북에 직접 가족의 이름을 쓰며 노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윤운하(11세) / 뇌병변장애

나 눔은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월1만원 후원자 30명이면,
- 월10만원 후원자 3명이면,
  매년 1명의 장애아동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전직원 단합대회

지난 8월 25일에는 흩어져 있던 밀알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50여 명의 밀알들이 함께 모여, 웃음치료 시간을 통하여 웃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는 강남 학동역의 난타 전용관에서 '난타' 공연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슴이 '뻥' 하고 뚫어지는 소리와, 스트레스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는군요~







miral news

밀알뉴스



법인사무국소식



전직원 단합대회

우리 법인 및 산하시설 전직원 단합대회가 8월 25(토) 오전 9시 밀알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20여명의 직원이 함께 모여 오전에는 찬양의 시간, 웃음치료 특강 등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에서 쏟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난타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모범직원 필리핀 연수

우리 법인은 2007년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9월 1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세부 등에서 실시하였다. 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류제룡 실행위원 등의 후원으로 바자오족 방문, 후원금 전달, 사회복지시설 견학, 관광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강태인 팀장 노동부 장관상 수상

강태인 팀장(법인 사무국 총괄팀장)이 9월 4일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우리 법인이 장애인고용 우수업체로 평가되어 실무자가 받는 상이다.



재수탁 심의통과

안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호)과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원장 이윤숙)이 재수탁 심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여 향후 3년간 계속 운영하게 되었다. 복지기관의 재수탁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하게 되는데 연장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시설 소식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탈의실 설치 전



탈의실 설치 후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는 지난 8월 근로 장애인들의 복리증진 및 근로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하여 사업장 내 상담실, 탈의실, 물품보관 창고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특히 상담실의 설치로 인하여 근로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쾌적해진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근로의욕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강남구가정복지센터



장애가족 내 비장애 청소년의 꿈이 이뤄지는 마법의 음악회가 펼쳐졌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SH공사는 10월 4일(목) 오후 7시,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 '장애가족 내 비장애청소년의 학업·특기교육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유익종, 나무자전거, 스윗소로우, 에버그린 등의 대중가수들이 출연하여 가을밤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였으며, 특히, 음악을 통한 '문화나눔', 후원금 전액을 장애가족 내 비장애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미래나눔', 또한 다자녀 가족 및 저소득 계층에게 10%의 객석을 할당하는 '객석나눔'을 통해 '나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음악회로 펼쳐졌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8월 17일(금) 경기도 화성시 흙꽃마을에서 재가어르신과 정의여고 사랑나누미가 함께하는 사랑나눔일일캠프를 실시하였다. 어르신과 학생들이 단짝이 되어 농산물 수확, 미꾸라지 잡기, 인절미만들기등의 체험을 함께하며 서로간의 정을 나누고 재미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다.

도봉시니어클럽



지난 9월14일(금)은 전국 일하시는 어르신의 위상과 연대, 우정의 장을 확인하는 전국시니어클럽 일하는 어르신 대축제가 대전충무 체육관에서 약35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에 도봉시니어클럽에서도 130여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하여 노인도 일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다지며 장기자랑, 수기, 포퍼먼스, 초청가수의 노래등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기회가 되었다.

도봉실버센터



9월 8일(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도봉구 공무원봉사단,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국민은행방학동지점)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릴레이"로 신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부암어린이집



8/24(금)-8/25(토)에 걸쳐 부암어린이집 최초의 장애아동 가족캠프가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체험 마을에서 열렸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 모두가 참여한 이번 가족캠프에서는 미리 준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즐기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8/23(목)-8/24(금) 무료 침.뜸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시민건강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된 이 행사는 구당 김남수(93세)선생과 제자 65명(뜸사랑회)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뜸, 침 등의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몸이 불편한 중증환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행사가 되었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는 7/25(수)~7/27(금)일 충남 청양에 위치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이번캠프에서 냉풍욕장관람, 레크레이션, 해수욕, 승마체험 등의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일원어린이집



8월 31일(금) 더운 여름의 끝에서 일원어린이집 친구들이 일원노인정을 찾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원한 팥빙수를 함께 만들어 먹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에서 노인의 공경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노인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밀알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는 9월 6일(목) 저녁 6시 부모 간담회를 가졌다. 3개월에 한번씩 가지게 되는 이 모임에서는 그동안 작업장의 진행 사항을 나누고 작업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작업장의 앞날은 더 밝으리라 확신한다!



2007년 3/4분기 후원금 수입 · 지출 내역보고

Ⅰ. 밀알복지재단 3/4분기 후원현황(2007.7.1 - 2007.9.30)

1. 일반후원금(141,107,574원)

1) 법인임직원후원금(16,635,210원)

(단위: 원)

서한석(3,825,210)/고영숙(1,300,000)/홍정혜(900,000)/강태인(660,000)/이성현(600,000)/김길영(450,000)/김귀자, 김승미, 민홍기, 안성기, 장영애, 전은주, 최영민(300,000)/권영섭, 김선식, 김정환1, 김종석, 김효은, 안정희, 이상모, 이은주, 임소희(150,000)/김영남(100,000)/권은정, 김용한, 박효경, 서수연, 오화중, 유혜현, 육근진, 윤우정, 이관철, 이율기, 이은경, 조경천90,000)/김동관, 김은경1, 김은하, 노영찬, 박지영2, 서은선, 설진선, 소영자, 심미성, 양한석, 원정분, 윤소영1, 윤탁근, 이교남, 이병춘, 이정훈, 정양선, 조한나, 채정희, 한소희, 함옥경(60,000)/주수경(45,000)/김경희, 김순한, 하지은(40,000)/박신득(35,000)/강경의, 강미영, 강영애, 강지현, 곽미리나, 권옥자, 김경숙1, 김권규, 김명옥1, 김미진, 김미화, 김미화1, 김성희, 김수진, 김순양, 김용진, 김주화, 김지연, 김현선, 김혜란, 김희애, 남윤용, 문용준, 문태선, 박은경, 박인화, 박진영1, 박찬숙, 박한숙, 서명지, 서은경, 설정자, 손영미, 신경미, 신영, 신정화, 심재훈, 안소영, 안은선, 안혜진, ,예은자, 오은주, 오혜미, 오혜정, 유버들, 유지성, 이강재, 이경희, 이대진, 이새맘, 이선화, 이수진, 이원옥, 이유정, 이은화1, 이주희, 이중희, 이지현, 이현진, 이희영, 임소희1, 장지윤, 전수현, 전영주, 정지순, 정진수, 정희주, 조은영, 지은정, 최연진, 한동훈, 한유미, 한주연, 함형례, 현관진, 홍성환(30,000)/김상미, 김선림, 김옥매, 김유니, 김은혜, 김지선1, 박준수, 손은정, 송미옥, 신상미, 신서영, 심승혜, 이명임1, 장은정, 조민수, 채연화, 채준태(20,000)/소정임, 이수남, 이숙희, 이정선, 이조우, 황연정(15,000)/김백란, 김수현2, 맹경진, 박요숙, 신건철, 이영애, 정설금, 진선미(10,000)/김다혜, 김혜진, 박현정1, 유명희(5,000)

2) 일반후원회 후원금(19,404,000원)

(단위: 원)

손홍배(1,400,000)/유재술(1,000,000)/진연희(900,000)/이영미(650,000)/김종화, 박철교(600,000)/김지현, 최우현(450,000)/김현윤, 민경식(400,000)/김기홍, 김진경, 김창열, 류영석, 박영선, 임동원, 임숙빈, 홍기정(300,000)/정재준(250,000)/한주석(200,000)/박용식, 박종봉, 서희선, 송영식, 안진형, 유원필, 이기봉, 이기수, 이상호, 최재순(150,000)/김용집, 이인선(120,000)/송재회(100,000)/김요한, 박기석, 박종훈, 서정화, 유정화, 이금자, 이서용, 이충권, 임미숙, 조양희, 차재복, 허숙경(90,000)/이은철(80,000)/강연실, 김명수, 김상래, 김순자2, 김은우, 김정근, 류향륜, 박남기, 박순자, 박정수, 박종관, 박태수1, 박현선, 송기훈, 신경애, 신미숙, 신한식, 양희영, 염정섭, 예인수, 왕원희, 이광희, 이상국1, 이인우, 장소은, 정조균, 정호진, 조원호, 최윤선, 한옥자, 한재국, 함영진, 홍선미, 홍지희(60,000)/김남용, 안기홍(50,000)/강성희, 김소연, 박옥남, 육정숙, 이원일, 주재순(40,000)/강자원, 곽순, 권병일, 권순, 권오찬, 권재현, 권진희, 권혁선, 권혜영, 김강수, 김다정, 김덕수, 김만호, 김미경, 김미미, 김범묵, 김복래, 김삼원, 김서희, 김선경, 김선숙, 김성자, 김수환, 김영찬, 김유정, 김은주, 김일진, 김재환, 김준길, 김지연, 김철순, 김호일, 류희경, 문보현, 민은해, 박금옥, 박미화, 박범규, 박석기, 박영, 박영선1박영숙, 박은영, 박정훈, 박종두, 박종찬, 박준태, 박지훈, 박찬규, 박후자, 배영옥, 백지현, 서미애, 손미영, 손병웅, 손연순, 손절자, 신재열, 안상희, 양근모, 여정식, 오화숙, 원영자, 원칠성, 유성광, 윤병숙, 은해운, 이경민, 이길선, 이남숙, 이명순, 이상민, 이석원, 이영수, 이영화, 이원복, 이윤나, 이은경1, 이임전, 이전옥, 이정숙, 이정인, 이준기, 이중근, 이필연, 이학순, 이향순, 임경희, 장명재, 장미라, 장영애1, 장지훈, 장창근, 전경수, 전광윤, 정명규, 정성현, 정세진, 정진경, 정해랑, 조은아, 조재기, 조진자, 주승현, 주영철, 진상문, 진은희, 최덕호, 최미자, 최성희, 최은조, 최은희, 한나미, 허형애, 허혜경, 현순혜, 호윤성, 홍숙자, 황상진, 황승욱, 황유원, 황효주(30,000)/고금숙, 권정희, 김계자, 김광숙, 문희, 박승순, 백형석, 성백흥, 손요섭, 유성연, 윤한수, 이문수, 이원경, 이은선, 장유련, 정낙군, 정우찬, 조필예, 진용상, 최덕현, 최미리(20,000)/강선혜, 권오성, 이인아, 조영빈, 최소정, 황민희, 황은희(15,000)/김광태, 김기영, 박제찬, 송혁재, 양희선, 윤태형, 이미옥, 이철수, 이현규, 전경희1, 전창규, 황방연(10,000)/박노숙(9,000)/박완기, 백승순(5,000)

3) 교회, 기업, 단체후원금(105,068,364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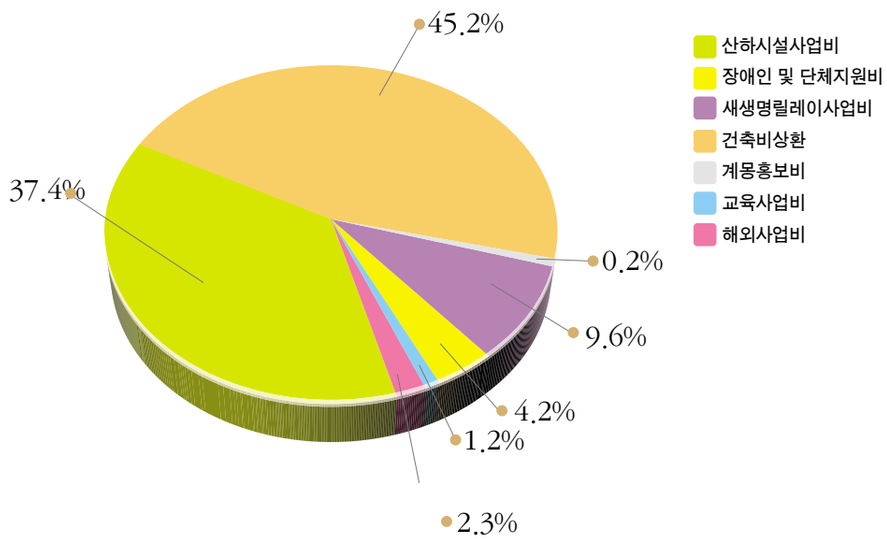
남서울은혜교회(45,400,000)/여천제일교회(31,000,000)/성덕중앙교회(12,000,000)/금융결재원직원회(3,133,000)/분당중앙교회,은평교회(900,000)/(주)코레스,가더스산업,법무법인한누리,아가페출판사,일산은혜교회,한사랑교회(600,000)/지구촌교회(416,500)/창원중앙교회(400,000)/신한카드(332,844)/(주)대현상공,고덕중앙교회,동부광성교회,산본양문교회,새소망교회,서울영동교회,만나교회,성복중앙교회,성산교회,성환장로교회,신반포교회,영도교회,남서울사랑의교회,평안교회,FCI(300,000)/분당예닮교회,주)최고로디지털,화도광성교회(200,000)/(주)세경멀티뱅크,사모횃불회,성남성산교회,성덕중앙교회1,수원북부교회,수지열린문교회,열린교회,영성교회(150,000)/주님의교회(100,000)/(주)지앤티글로벌,새생활교회,흑석제일성결교회(90,000)/모빌리언스(85,100)/예닮교회(60,000)/SK커뮤니케이션즈(53,900)/삼일교회(50,000)/우미선/우미디자인(30,000)/이마트단체(27,020)/아침빛전자(10,000)

2.밀알학교 건축후원금(116,505,170원)

남서울은혜교회(116,505,170원)

Ⅱ. 밀알복지재단 후원사용내역보고(2007.7.1 - 2007.9.30)

수 입		지 출	
총계	257,612,744원	총계	257,612,744원
일반후원금	141,107,574원	산하시설사업비(37.4%)	96,306,127원
건축후원금	116,505,170원	장애인 및 단체지원비(4.2%)	10,775,000원
		새생명릴레이사업비(9.6%)	24,660,670원
		건축비상환(45.2%)	116,505,170원
		계몽홍보비(0.2%)	550,000원
		교육사업비(1.2%)	3,015,000원
		해외사업비(2.3%)	5,800,777원



법인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02-3411-4664 F.02-3411-4779

밀알학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02-3412-1133 F.02-3412-1132

밀알아트센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 02-3411-4661,2 F.02-3411-4663

밀알그룹홈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0-1
T.02-3411-4664 F.02-3411-4779

밀알보호작업장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750-1 남서울은혜교회 5층
T.02-445-4440 F.02-445-4449

강남구가정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02-3412-2222 F.02-3412-2223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19-12
T.02-993-9900 F.02-993-0511

도봉시니어클럽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01-15 거성학마을 APT 상가3층
T.02-3492-3009 F.02-3492-8771

도봉실버센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41-1
T.02-955-6080 F.02-955-4700

목련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02-3412-1999 F.02-3412-1997

부암어린이집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5-10
T.02-396-6226 F.02-396-6227

일원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730
T.02-459-3221 F.02-459-3354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
T.031-403-0078 F.031-405-1092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시곡스타워 201호
T.031-777-9041 F.031-777-9043

여수쌍봉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학동 65-나
T. 061-681-7179 F.061-681-7315

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8-8 1층
T.055-753-1456 F.055-753-1457

전남지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241-1번지
T. 061-681-7179 F.061-681-7315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